

123. 재물, 탐욕, 자기애 및 아귀(물고기)의 위험성.

2015.09.03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오늘밤 저는 주님께서 위험한 적들로부터 저의 고삐를 어떻게 잡아오셨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저희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분들은 이것을 아실 거예요. 흑표범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찬양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 저는 최근에 낚아서 부끄럽게 찢어진 저의 옷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약간의 옷들을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받은 것에 대해 말할 거예요. 첫번째로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년간 옷을 사는 것을 피해왔어요. 두번째로는 제가 정말 쉽게 끌려 나가는 것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 누구도 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저의 옷들은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하였고 이 기부로 인해 몇 가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에서 많은 쇼핑을 했었고 제가 걱정했던대로,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중고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를 지치게 해요. 저는 매일 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그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어요.

하지만 제 키, 그리고 발목까지 닿는 충분한 길이의 터틀넥이 달린 긴 셔츠들과 바지들과 같은 것들은 중고품 가게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았고 대체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거의 모두 찾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맞는 충분한 사이즈가 있었어요.

저는 맞는 것들을 찾기 위해 몇시간 동안 인터넷을 검색한 후에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저는 그 느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산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너는 이게 필요해, 너는 저게 필요해. 너는 여기를 보지 않았잖아? 너는 저기를 보지 않았잖아? 너는 검색하기 위해 적당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 다시 해봐! 저는 어떠한 것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끔찍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약속(Bible Promises) 책을 펼쳤고 ‘음식과 옷’ 이라는 주제를 열었어요. 저의 첫 반응은 ‘좋아!! 주님께서 내가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구나’ 였어요.. ‘오 이런..’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자리잡았고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클레어, 이것이 또 무슨 의미일 수 있을까??’ 양쪽을 둘 다 보는 것이 나아요. 죄송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해요..

분별력을 명확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신의 방식으로 물건을 얻는데 집착하는 것이예요.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를 원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수용하기 위해 심지어 성경구절을 왜곡해요. 그것은 분별력에 있어서 치명적이예요! 여러분은 입을 삐죽거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의 거절을 기꺼이 받아들일려고 해야해요. 행동보다 말이 쉬워요!

음, 저는 성경 약속책의 제목에 ‘음식과 옷’에 대해 예전에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 뜻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 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마태복음 6장 25~34절)

만약 제가 잠을 자려다가 검색 엔진에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침대에서 튀어나와 컴퓨터를 켜고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강박적이고 충동적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좋아, 이제 한 구절을 얻었어.’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성경 약속책을 다시 열었어요. 제가 무엇을 열었을까요? 바로 같은 페이지, ‘음식과 옷’ 그리고 마태복음6장이 있는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확실함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완전하게 끝내기 위해 세번째로 열어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3번 열어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열었을까요? ‘부모의 의무’요. 음, 에스겔과 저에게 그것은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라는 의미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라는 것이요. 제가 그 페이지를 열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즉시 제 오른쪽 귀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너 자신이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

(클레어) 와, 저는 정말 큰 위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로 여기서 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거예요.

저의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고 주님과 저는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졌든 가지고 있지 않든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 그래 줄 수 있어? 여기서 정말 멈춰줄 수 있어?

(클레어) 주님은 걱정과 연민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응답했어요. “네. 주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심부름을 해야 했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지은 후 다윗이 쓴 최고의 회개 시편인 시편 51장의 휴대용 성경책을 펼쳤어요. ‘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오,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평범한 관찰자에게 제가 균형을 잃거나 방황하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흑표범과의 제 이력을 아는 사람들은 저의 자기의지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저의 남편을 거의 잃을 뻔하였는지 알고 있고, 그것은 정말 큰 일이에요.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생각들을 속박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 저의 방황, 그리고 완벽주의에서 승리를 얻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완벽주의자 일 때, 여러분은 거의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어때? 저게 더 낫지 않을까?’ 등등이요.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고 확신해요.. 오늘밤 찬양에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부의 유혹은 너의 가족에게 매우 강해.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려 나가게 했을 때 너를 세상에 잃을 까봐 나는 움츠러들어. 전세계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아. 너의 싸움을 그들에게 공유해 줄래?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싶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해.

(클레어) 저는 기니피그(실험용 쥐)가 다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저희 모두가 물어볼 만한 합법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쭙봤어요. “하지만 주님, 어떤 것들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 배후에는 이끌려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들이 있고 그것은 정말 위험해. 너도 알잖아 클레어.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지금도 느낄 수 있잖아. “하나만 더. 아휴! 끝났어. 오, 잊어버렸어.. 나는 이것도 필요해. 하지만 저것 없이는 보기 좋지 않을 거야.” 그것은 계속 되. 그것을 멈출 수 없어. 그것은 끝이 없고 사악해.

(클레어) 물론 저는 사악하다는(Nefarious) 뜻을 사전에서 찾아봐야 했어요. 그 뜻은 악하거나 범죄를 의미해요. ‘조직 범죄단의 사악한 활동, 범죄조직.’ 이요.

(예수님) 이렇게 해석해라.. 정욕의 악마 집단의 사악한 활동, 취득, 집착, 욕심, 탐욕(탐욕은 정말 커), 완벽주의. 그것들에 대한 완벽함을 절대로 찾지 못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완벽함을 약속하고 너희들을 산만함, 우상숭배 그리고 죄로 더 깊이 유인해.

(클레어) 그리고 이것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갔던 곳의 우상숭배를 하는 이도교들이 그들의 금과 은 등을 어떻게 숭배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성경구절을 오늘 이른 낮에 읽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의 이 특별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탐욕과 우상숭배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이야기를 가져오세요.

(예수님) 내 사랑아, 그것은 필요함이 아니야. 필요함의 뒤에는 욕정의 원동력,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욕이야.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라는 모습으로 숨기지만 거기에 진정으로 끝은 없어. 머리 끝에서 빛나는 가짜미끼로 낚시하는 심해 물고기(아귀)처럼. 미끼로 먹이감을 입으로 유혹하는 빛을 발산해. 입과 턱은 위와 함께 팽창하여 먹이감이 입의 안쪽으로 헤엄치게 할 수 있고, 안쪽으로 기울어진 이빨이 먹이감을 뒷에 걸리게 해. 그 함정의 문은 닫히고 너희들은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알게 되. 그것은 해로운 물질에 대한 애착이고, 표면적으로는 만족감을 가져다줘. 그 만족감은 잠깐동안 지속되지만 공허함이 다시 들어와.

그 공허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 유인하는 것 중의 일부는 좋은 식사를 약속하지만 잘 먹게 되기 보다는 오히려 먹히게 될 거야. 적들이 너희들을 먹을 거야. 표면적인 것들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 소비되어져. 전세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소유물을 과잉으로 소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동안 아무것도 없거나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클레어) 하지만 주님, 이 사람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예수님) 그들이? 그들이 얻은 소유물에 대한 최초의 장소로 되돌아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착취당한 곳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요점이 아니야. 요점은 계속해서 영혼을 소모시키는 독이라는 것이야. 충분함은 절대로 충분해지지 않아. 항상 더 '필요한' 것이 있어. 부자의 부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은 적든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부자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전도서5장12절)

나는 너희들이 아주 정말 작은 것에 만족하기를 바래. 왜냐하면 작은 것에 대한 만족을 찾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최소화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보여주기 때문이야. 모든 것을 한곳에 모으고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그러면 과도하거나 끊임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없어지게 될 거야.. 예를 들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 또한 필요하고." 등등.

미끼는 미끼로 보이지 않아.. 보이는 모든 것은 이것들을 가지고 싶은 너희들의 욕망과 기대의 빛나는 빛이야. 그 턱이 너희들의 뒤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너희 자신을 탈출시킬 수 없을 때까지 만드는지 너희들은 보지 못해. 이것이 정확하게 신용카드가 하는 일이야. 신용카드는 너희들이 절망으로 빛에 갇히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너희들을 유혹해. 그리고 너희들을 빛에 갇히게 한 그 물건들은 쓸모 없게 되고 너희들은 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

반면에 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영혼들은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더해질 것이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얽히게 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매우 적게 원하는 법을 배웠어. 그들은 새처럼 자유롭고 소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이고 얽힘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봐.

내가 너에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한 이력을 가진 가정에서 왔어. 그러므로 그 세대의 저주를 깨뜨렸다 할지라도 물건을 얻는 것을 즐기는 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어. 소유욕의 영.

(클레어) 네 주님. 저는 물건에 대한 욕망, 완성에 대한 욕망,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더 나은 가치 혹은 더 나은 품질을 가졌어요. 제 마음의 뒤쪽에서 일종의 진동하는 조용한 웅웅 거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끔찍해요.

(예수님) 클레어, 그것은 너를 파괴하고 내품에서 너를 떨어뜨리려고 해.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분투하게 만드는 이유야. 그것은 너를 강해지게도 하고 약해지게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는 한 너는 위험해. 너가 그것을 먹어 그것이 몇 년 동안 너를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굶기든지.

(클레어) 제가 찬양을 할 때 저는 흑표범이 악어처럼 물위를 떠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오직 코와 귀와 눈이 물위에 떠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할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를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고 덮칠 준비가 되어있었어요.

(예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어떠한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것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좋아.

(클레어) 네, 저는 생각했어요.. '음 겨울이 오고 있고 내 일상생활 옷들은 말 그대로 내 몸에서 찢어져 떨어져 나가고 있어. 만약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도 겨울에 적어도 따뜻한 옷은 입을 거야.'

(예수님) 내 사랑아,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그 흑표범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어. 너는 약간 미끄러져서 희생양이 되었고,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산만해졌어.. 하지만 그 작은 미끄러짐은 너가 그것을 통제할 때까지 심각한 소용돌이 아래로 빠지는 것의 시작에 불과 하였어. 지금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는 너의 결심에 만족해. 하지만 경계해라. 적들은 너의 영혼을 파괴하고 너를 내 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두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심각한 경고야. 어젯밤 너가 꿈에서 무엇이 너를 공격했지? 그것에 대해 말해줘.

(클레어) 저는 어젯밤에 악몽을 꾸었고 이 악몽은 가장 최악의 악몽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꿈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마치 우리집에 있는 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방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 뒤에 누군가가 있을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뒤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문을 저에게 살짝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강한 남자가 문 뒤에서 뛰어나와 저를 완전히 압도하고 저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소리지르기 시작했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정말 커서 에스겔을 깨웠어요. 무서움으로 에스겔을 진땀 나게 했어요! 이 강한 남자에 의해 제가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 그것은 너를 압도하고 너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의 특성과 힘이야. 너가 지금 우리의 가까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 하지만 얼마나 너가 거기에 가까이 왔는지 전혀 몰라.

나의 신부들아, 무엇보다도 악마들은 나에게서 너희들을 빼앗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아라. 이를 위해 악마들은 교회에 가고 안식을 가지는 나와 함께 하는 날에 너희들이 일하게

만들도록 노력할 거야. 적들은 너희들의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서 나를 위한 시간이 남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줄이는 수익성이 좋은 위치를 제안받는 것을 지켜볼 거야. 악마들은 너희들을 스토킹 하고 너희들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이유야.

이것은 또한 너희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야. 폭풍, 추위, 집 필수품들. 그리고 이 악마들은 너희들을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의 범위를 넘어가서 정당화할 수 없는, 너희들 자신의 마음에 중요해 보이는 곳으로 밀어붙이는데 능숙해. 너희들은 집중을 잃고, 균형을 잃고, 그런 후 나와 의 관계를 잃어. 겨울을 준비하는 이번 계절에 악마들이 너희들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깊은 물속으로 이끌고 너희들을 쓰러뜨리려는 초대에 머리를 들이밀지 말아라.

변화와 산만함이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의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후회하지 않고 내 품안에서 안전하게 이 계절을 보낼 거야.

나는 지금 너희들이 자기사랑과 자기추구의 모든 흔적을 극복하고 곧 다가오는 날에 내 앞에 설 자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너희들 모두를 용기로 축복해. 아멘.